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1.337>

JCCT 2024-1-39

여성창업 지원사업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대상 델파이 분석

Delphi Analysis for Experts to Develop an Assessment Index for Women's Entrepreneurship Support Programs

김흥희*, 김윤환**, 김문숙***, 주영미****, 김대건*****

Kim Heung-Hee*, **Kim Yun-Hwan****, **Kim Moon-Sook*****, **Ju-Young-Mi******,
Kim Dae-Geun*****

요약 본 논문은 “여성창업가 및 기업을 선별을 위한 측정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창업 지원 사업의 창업기업 선정평가 시 여성 창업기업만의 선별을 위한 측정지표가 부재하여, 평가방법의 한계를 조명한다. 따라서 보다 성공적인 여성 창업가 및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효과적인 측정지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다수의 여성창업기업 성공요인들을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하였고, 델파이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문가 패널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여성창업기업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로, 여성 창업가들의 특성이 반영된 성공요인으로부터 새로운 평가지표가 제시된다. 이 지표는 여성창업기업 선별을 위한 기존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 창업기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및 정책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여성창업기업, 창업지원사업, 선정평가지표, 델파이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Index for Women’s Entrepreneurship support programs.”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absence of specific assessment indicators for selecting women-led enterprises in women's entrepreneurship support programs, thereby illuminating the limitations of current evaluation methods. It emphasizes the necessity for effective indicators to more successfully select women entrepreneurs and enterprises. The study derives numerous success factors for women's entrepreneurial ventures from prior research and develops a more likely to succeed assessment index for women-led enterprises using the Delphi methodology and collaboration with expert panels. The result is a new assessment index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women entrepreneurs, expec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election methods and contribute to enhancing social support and policy development for women-led enterprises.

Key words : Women Start-up, Entrepreneurship Support Program, Selection Assessment Index, Delphi

*정회원, 계명대학교 창업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정회원, 계명대학교 창업학과 박사과정 (공동저자)
***정회원, 계명대학교 창업학과 박사과정 (공동저자)
****정회원, 계명대학교 창업학과 박사과정 (공동저자)
*****정회원, 계명대학교 창업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15일, 수정완료일: 2023년 11월 6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10일

Received: October 15, 2023 / Revised: November 6, 2023
Accepted: November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essekim@kmu.ac.kr
Dept. of Entrepreneurship, Keimyung University, Korea

I. 서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저해하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은 현재까지 사회 곳곳에 만연하여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속에서 여성의 역할 모델 부재가 남성 중심의 업무환경 문화를 유지하게 만듦으로써 여성들의 경력개발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1].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이로 인한 취업 기회를 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창업을 선택하기도 한다[2].

그러나 위 같은 미는 요인(Push Factors)으로 창업 동기가 유발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도전정신과 자기만족감, 독립욕구 등과 같은 당기는 요인(Pull Factors)이 창업동기가 되어 창업을 실행하는 선행연구도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김윤선·이일한(202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창업가들은 자기만족과 독립 그리고 자아실현을 우선시하는 특징이 있으며, 창업진입률에서 성별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업종별·성별 창업기업 수」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창업비율이 평균 약 87.07%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크게 뒤쳐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창업기업은 매출액, 수익률, 고용창출 등 모든 생산 측정치에서 남성창업기업보다 낮게 나타냈는데, 이는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남성중심의 사회적 관행, 그리고 남성위주의 네트워크 운영 등의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4]. 때문에 여성기업가는 남성에 비해 외부 자금조달이 아닌, 내부 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5], 따라서 여성은 남성과의 다른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생존 전략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6].

정부는 기존 대기업 성장에 의한 낙수효과를 바라보던 과거와는 달리, 규모경제의 생산성 극대화 노동력의 수요가 부족해짐에 따라, 창업활성화를 대안으로 산업 패러다임에 변화를 주고 있다[7]. 이에 중앙부처부터 지자체까지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지원사업의 선정이 창업기업의 질적 성장과 긍정적인 성과를 담보하지 않다는 것은 만연한 현실이다. 실제 지난 2020년 통계청 기업

생멸행정통계의 「대표자 성별 신생기업 생존율」에 따르면 설립 1년차부터 기업의 생존율은 64.8%로, 창업기업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무려 35.2%가 문을 닫으며, 해가 지남에 따라 생존율은 조금씩 떨어져 7년차의 생존율은 고작 25.1%로, 무려 창업기업 3/4 이상이 10년도 못가 존속치 못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에 비해 매년마다 약 5~6%p 낮았다.

이렇게 정부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비하여,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 선정방식은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담당자와 실제 평가하는 평가자의 개인적 환경과 배경이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보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선별을 위한 선정평가 지표의 개선이 요구되었고[8],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여 창업기업 성공요인 고찰을 반영한 여러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지표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균형성과표(BSC)를 적용한 평가지표라든가 기업 성장 결정요인을 반영한 평가모델 개발 등 일반적인 평가모형과 지표개발은 이루어졌으나, 성별에 따른, 특히 여성기업을 평가하는 평가모델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창업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제한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있어, 보다 유망한 여성기업을 선별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의 긍정적 효과 발현을 위해 여성기업의 창업지원사업 선정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여성창업기업의 정의

“창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창업기업”은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을 말한다. 즉 여성창업기업은 여성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고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성기업”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회사 대표가 여성으로 최대 출자지분을 가진 기업, 여성이 등록된 개인사업자,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여성기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기업의 존속기간 차이에 따라 창업기업과 차이를 가진다.

2. 여성창업가의 특성에 따른 창업 성공요인

Maria Minniti & Wim Naude(2010)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기업성고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사회-경제적 행동(socio-economic behaviour)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9]. 사회-경제적 행동이란 문화, 가치관, 교육, 사회적 계층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소득, 직업, 경제적 안정성, 시장의 상태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따라 선택과 행동, 습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인데, 즉 여성에게 나타나는 고유의 사회-경제적 행동이 그들이 창업하고 경영하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아래 <표 1>은 창업기업 성공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 1. 연구자별 여성창업기업 성공요인
 Table 1. Women's Entrepreneur Success Factors by researchers

연구자	여성창업기업 성공요인
문숙재, 최자경(2001)	연령, 학력, 창업전 기대한 목표연간순이익
나중덕, 김승호, 최탁열(2004)	물적 및 인적자원의 풍요성, 관리적 능력
백윤정(2005)	고객과의 연결망, 기술관련 연결망
이상석(2006)	가족지원, 문화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업지식, 경영능력, 고용자원의 활용능력
최영진, 윤위석, 김경환(2007)	혁신, 경쟁 환경
임채관, 김향란(2009)	여성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여성창업자의 경영관리 특성
마윤주, 장성희(2009)	심리적 특성, 역량적 특성
장성희, 정지연, 반성식(2009)	비전설정 능력,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기회포착능력
정대용, 박경업(2010)	자아효능감, 비공식적 네트워크
반성식, 장성희(2010)	여성창업가의 특성(성취욕구, 비전설정 능력), 네트워크 특성(네트워크의 신뢰)
민경세, 안상철(2011)	경력특성(전공), 행위적특성(창업동기), 역량특성(관리적 역량)
오혜미, 이창영, 김진수(2014)	심리적 특성, 환경적 특성, 개인적 특성
박종복, 양현봉(2014)	심리적·인지적 요인, 기업경영 역량 요인
장성희, 김희자, 반성식(2014)	여성창업가 특성, 여성창업기업 조직문화
최문경(2015)	기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박철우(2016)	기업가정신(진취성, 위험감수성), 자기효능감
박성희, 채연희(2017)	사업자기효능감
박종복(2018)	심리적·인지적 특성, 기업경영 역량 특성
Hu Jijia & Li Qiong(2022)	창업환경, 기업가적 학습(경험적·인지적 학습)
Liu Na, Lee & Keon Hee(2023)	창업 동기, 창업 기회 인식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오혜미 외(2014)는 여성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위험감수성향, 비전설정능력, 기회포착능력 등), 환경적 특성(나이, 능력, 자신감, 육아, 사회적 편견 등), 개인적 특성(네트워크)이 여성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0].

민경세, 안상철(2011)은 여성CEO의 특성으로 경력 특성, 행위적 특성, 역량 특성으로 구분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하여 창업성공에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 창업동기, 관리적 역량을 확인하였다[11].

Hu Jijia & Li Qiong(2022)는 정부 창업정책, 시장 기회, 문화 및 사회적 규범과 같은 창업환경과 경험적 학습, 인지적 학습과 같은 기업가적 학습요인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2].

여성창업기업의 성공요인은 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이에 영향을 받은 조직의 특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공요인들을 여성창업기업 선정평가에 활용할 평가지표로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통한 델파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아래 <표 2>는 위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을 요약 및 정리하였다.

표 2. 선행연구를 통한 여성창업기업 성공요인 요약
 Table 2. Summary of Women's Entrepreneur Success Factor

범주	분류	측정지표	비고
여성 창업자 역량 평가 (개인적 특성)	여성창업자 경력특성	연령	A-1
		학력	A-2
		전공	A-3
		업무 관련 또는 창업 경험	A-4
	여성창업자 심리적·인지적 특성	창업동기	B-1
		창업효능감	B-2
		대인관계능력	B-3
		의사소통능력	B-4
		시장 및 기술·지식에 대한 이해도	B-5
		성취욕구	B-6
		진취성	B-7
		위험감수성	B-8
	여성창업자 기업경영 역량	혁신성	C-1
		기술·지식자산의 활용능력	C-2
		판로개척 및 확보 능력	C-3
		ICT, 서비스 등의 도구 활용 능력	C-4
여성창업자 기업경영 역량	비전 설정 능력	C-5	
	기회인지 능력	C-6	
	원가 우위	D-1	
	차별화 우위	D-2	
	기술개발 우위	D-3	
	혁신지향문화	E-1	
여성창업기업 조직역량	과업지향문화	E-2	
	우수 인적자원 확보 역량	E-3	
	물적자원 확보 역량	E-4	
	파트너의 보유 역량	E-5	
	협력관계 정도(네트워크 신뢰)	E-6	

III. 연구방법 및 분석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여성창업기업의 성공요인이 선정평가요소로 적합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차례의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델파이 조사 모두에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했으며, 패널들이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고 제안할 수 있게 하는 '수정 델파이기법'으로 진행하였다[13].

2. 전문가 패널 선정

본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은 정부지원사업의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력 5년 이상의 실무자와 창업 관련 대학교수, 그리고 복수의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여성창업기업 대표 총 1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3. 전문가 패널 구성

Table 3. Members of the Expert Panel

연번	소속	성별	직책	성명	경력 연수
1	OO대학교	남	교수	김OO	5+
2	OO대학교	남	교수	박OO	10+
3	OO공과대학교	여	대리	양OO	5+
4	OOOO과학기술원	남	팀장	김OO	15+
5	OO과학기술원	여	선임	김OO	5+
6	OO과학기술원	여	선임	박OO	5+
7	OO창조경제혁신센터	남	팀장	정OO	5+
8	OO테크노파크	남	선임	배OO	10+
9	OOO 엔젤투자허브	남	센터장	김OO	10+
10	OO여성인력개발센터	여	관장	이OO	5+
11	(주)케OO	여	대표이사	이OO	5+
12	(주)코OOO	여	대표이사	박OO	20+
13	(주)마OOOO	여	대표이사	이OO	20+
14	더OOOOO	여	대표	김OO	5+
15	공OOO	여	대표	이OO	20+

전문가 패널 섭외는 2023년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개별 전화와 SNS, 직접대면 등을 통해 연구목적 설명 및 동의를 구한 뒤 진행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졌고, 1차 분석 실시 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2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차례 델파이조사 응답률을 100%로 나타냈다.

3. 델파이조사 내용 및 방법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각 측정지표에 대한 타당

도, 신뢰도, 그리고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지표의 타당도와 중요도는 7점 척도(1점: 매우 부적절, 7점: 매우 적절)로 평가하였다. 또한 2차 조사 때에는 1차 조사 결과의 평균과 중앙값을 함께 제시해줌으로써 패널들이 재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먼저 내용타당도 비율(CVR: Content Validity Ratio)을 산출하여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이 비율은 Lawshe(1975)의 연구에 기초한 것으로,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 수에 따라 최소값이 결정되며, 유의도 0.5 수준에서 이 최소값 이상이 되는 측정지표들만 내용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3].

CVR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CVR = \frac{N_e - \frac{N}{2}}{\frac{N}{2}}$$

N 은 패널 수, N_e 는 '적절'으로 응답한 패널의 빈도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N_e 를 5점, 6점, 7점으로 응답한 패널의 빈도수로 산출하였으며, 패널 수에 따른 최소 CVR은 아래와 같다.

표 4. 패널 수에 따른 내용타당도 비율 최소값

Table 4. Minimum Values of panels

No. of Panelists	Min. Value
5	.99
6	.99
7	.99
8	.75
9	.78
10	.62
11	.59
12	.56
13	.54
14	.51
15	.49
20	.42
25	.37
30	.33
35	.31
40	.29

주: $p = 0.5$

자료 : Lawshe(1975)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한 패널 수가 총 15명이므로, CVR 최소값이 0.49 이상이 되어야 내용타당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은 각 단계별 델파이조사 결과의 신뢰도(Reliability) 검증은 위하여 여성창업기업 성공요인 영역별로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0.7 이상이면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델파이 기법의 타당도(Validity)는 전문가 패널의 의견 수렴도(Convergence)와 안정도(Stability)를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다. 수렴도는 의견이 한 점에 모두 수렴할 때에 0의 값을 가지며, 즉 1차 조사 대비 2차 조사 때의 수렴도가 낮아지면 패널들의 의견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14]. 수렴도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text{수렴도} = \frac{Q_3 - Q_1}{2}$$

안정도(Stability)가 확보되었다는 의미는 반복되는 패널들의 응답차이가 적다는 의미이며, 이는 표준편차를 산술평균으로 나눈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으로 측정한다. 변이계수가 0.5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문 필요 없으며, 0.5에서 0.8인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단, 0.8 이상일 경우 추가적인 설문이 필요하다[15].

IV. 분석결과

1. 1차 델파이조사 결과

선행연구로 도출된 측정지표가 타당함에 대해 7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총 5개의 영역의 27개 지표 중 6개의 지표에서 CVR 값이 0.49 미만으로 분석되어 내용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VR 값이 0.49 이상으로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들은 모두 평균 5점 중반 이상이고 중앙값(Mdn) 역시 모두 6점 이상으로, 대부분의 패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지표들은 모두 그보다 낮았다.

사분범위는 전반적으로 1~2를 나타냈으나, A-2(학력)와 A-3(전공)은 각각 3.5, 2.5를 나타내, 패널 간의 의견차이가 타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측정지표에 대한 세부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측정지표의 영역별 신뢰도 분석 결과, 두 개의 영역 모두 Cronbach α 값이 0.7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 주었으며 세부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Table 5. Result of the 1st Delphi analysis

측정지표	Mean	S.D.	Mdn	Q ₃ -Q ₁	CVR
A-1	2.67	1.40	2	3-2	-0.73
A-2	4.07	1.73	4	6-2.5	-0.07
A-3	4.60	1.58	5	6-3.5	0.07
A-4	6.13	0.88	6	7-6	0.87
B-1	6.13	0.81	6	7-5.5	1.00
B-2	6.40	0.71	7	7-6	1.00
B-3	6.13	1.02	6	7-6	0.73
B-4	6.40	0.71	7	7-6	1.00
B-5	6.60	0.49	7	7-6	1.00
B-6	6.47	0.50	6	7-6	1.00
B-7	6.33	0.70	6	7-6	1.00
B-8	5.93	1.00	6	7-5	0.87
C-1	6.67	0.47	7	7-6	1.00
C-2	6.27	0.68	6	7-6	1.00
C-3	6.40	0.49	6	7-6	1.00
C-4	5.13	0.96	5	6-4	0.33
C-5	6.13	0.88	6	7-5	1.00
C-6	6.00	0.73	6	6.5-5.5	1.00
D-1	5.00	1.32	5	6-4	0.33
D-2	6.27	0.68	6	7-6	1.00
D-3	6.20	0.65	6	7-6	1.00
E-1	5.60	0.61	6	6-5	0.87
E-2	5.13	1.02	5	6-4.5	0.47
E-3	6.40	0.61	6	7-6	1.00
E-4	5.53	1.09	6	6-5	0.73
E-5	6.33	0.79	6	7-6	0.87
E-6	6.33	0.60	6	7-6	1.00

주: CVR < 0.49

표 6. 1차 델파이 조사 평가지표의 영역별 신뢰도
 Table 6. Reliability by classification of the 1st Delphi analysis

영역	분류	Cronbach α
여성창업자 역량평가 (개인적특성)	여성창업자 경력특성	0.837
	여성창업자 심리적·인지적 특성	
	여성창업자 기업경영 역량	
여성창업기업 역량평가 (조직적특성)	여성창업기업 경쟁우위	0.797
	여성창업기업 조직역량	

타당도가 적절치 않은 측정지표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해당 지표들이 과거에는 성공요인으로서 작용이 가능했겠지만, 빠른 기술발전과 급변하는 시장을 대표하는 현 창업생태계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연령, 학력, 전공과 같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력 요소와 IT 활용능력과 같은 창업자의 개인 역량보다는, 직원과 파트너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

였다. 또한 글로벌 경제시대에 원가우위만으로는 브랜드의 가치,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없으며, 강화된 노동환경 속에서의 과업지향문화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해당 측정지표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다.

2. 2차 델파이조사 결과

전 지표의 CVR이 0.49 이상으로 분석되어 내용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전체 측정지표 중 평균값은 모두 5.8 이상으로 높은 값을 보여주었으며, 중앙값은 모두 6 이상을 보였다. 사분범위도 모두 1.5이하로 좁은 분포를 나타내어 패널들의 의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조사 분석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측정지표의 영역별 신뢰도 분석 결과 모두 Cronbach α 값 0.8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모든 영역에서 1차 조사 때 대비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7.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Table 7. Result of the 2nd Delphi analysis

측정지표	Mean	S.D.	Mdn	Q ₃ -Q ₁	CVR
A-4	6.20	0.83	6	7-6	0.87
B-1	6.13	0.96	6	7-6	0.73
B-2	6.13	0.81	6	7-5.5	1.00
B-3	6.33	0.60	6	7-6	1.00
B-4	6.60	0.49	7	7-6	1.00
B-5	6.27	0.68	6	7-6	1.00
B-6	6.07	0.68	6	6.5-6	1.00
B-7	6.13	0.72	6	6.5-6	0.87
B-8	6.00	0.82	6	6.5-6	0.87
C-1	6.53	0.62	7	7-6	1.00
C-2	6.07	0.77	6	7-5.5	1.00
C-3	6.20	0.65	6	7-6	1.00
C-5	5.87	0.72	6	6-5	1.00
C-6	6.27	0.68	6	7-6	1.00
D-2	6.40	0.80	7	7-6	1.00
D-3	5.93	1.00	6	7-5.5	0.73
E-1	5.93	0.85	6	6.5-5.5	0.87
E-3	6.53	0.62	7	7-6	1.00
E-4	5.87	0.72	6	6-6	0.87
E-5	6.27	0.57	6	7-6	1.00
E-6	6.33	0.47	6	7-6	1.00

주: CVR < 0.49

표 8. 2차 델파이 조사 평가지표의 영역별 신뢰도
Table 8. Reliability by classification of the 2nd Delphi analysis

영역	분류	Cronbach α
여성창업자 역량평가 (개인적특성)	여성창업자 경력특성	0.905
	여성창업자 심리적·인지적 특성	
	여성창업자 기업경영 역량	
여성창업기업 역량평가 (조직적특성)	여성창업기업 경쟁우위	0.807
	여성창업기업 조직역량	

3. 의견 수렴도 및 안정도

1차,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위 위한 수렴도와 안정도 결과는 <표 9>와 같다.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한 수렴도 값이 1차 때 보다 낮아진 측정지표로는 B-1(창업동기), B-6(성취욕구), B-7(진취성), B-8(위험감수성), C-5(시장 및 기술 지식에 대한 이해도), E-4(물적자원 확보 역량)로 나타나, 1차 때보다 어느 정도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2(창업효능감), C-2(기술·지식자산의 활용능력), D-3(기술개발 우위)의 경우 1차 때보다 수렴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문가 패널들이 1차 조사 때의 결과를 참고하여 2차 때 자신들의 의견을 재평가하여 다른 결론으로 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정도(Stability)를 보기 위한 변이계수 값은 모두 0.5 미만으로 측정되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9. 1차·2차 델파이 조사의 의견 수렴도 및 안정도
Table 9. Convergence & Stability of the 1st·2nd Delphi Analysis

측정지표	수렴도		안정도	
	1차	2차	1차	2차
A-4	0.5	0.5	0.14	0.13
B-1	0.75	0.5	0.13	0.16
B-2	0.5	0.75	0.11	0.13
B-3	0.5	0.5	0.17	0.09
B-4	0.5	0.5	0.11	0.07
B-5	0.5	0.5	0.07	0.11
B-6	0.5	0.25	0.08	0.11
B-7	0.5	0.25	0.11	0.12
B-8	1	0.25	0.17	0.14
C-1	0.5	0.5	0.07	0.09
C-2	0.5	0.75	0.11	0.13
C-3	0.5	0.5	0.08	0.11
C-5	1	0.5	0.14	0.12
C-6	0.5	0.5	0.12	0.11
D-2	0.5	0.5	0.11	0.13
D-3	0.5	0.75	0.11	0.17
E-1	0.5	0.5	0.11	0.14

E-3	0.5	0.5	0.10	0.09
E-4	0.5	0	0.20	0.12
E-5	0.5	0.5	0.12	0.09
E-6	0.5	0.5	0.09	0.07

V. 결론 및 시사점

창업환경과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성공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친다[16]. 그러나 무분별한 창업지원의 확장은 국가예산 낭비와 더불어, 창업지원사업 예산에만 의존하여 버티는, 이른바 좀비기업 양성을 야기하기도 한다[17].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여성창업기업 선정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게 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여성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지표들은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정책 결정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여성 창업자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반 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긍정적으로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18], 여성 창업기업만의 특유의 조직적 역량과 문화 또한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것이다. 즉 여성 창업자들이 경험하는 특수한 상황과 장애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별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후속 연구들에게 여성 창업기업 선정과 관련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분석한 지표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과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반영하여 각 측정지표들에 대해 중요도에 따른 배점을 차등하여 적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들로부터 도출한 여성창업기업의 성

공요인들이 시간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분석에 국한되어 있어, 조사 대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간적 요소를 포함한 중단 연구(Longitudinal Study)를 수행함으로써, 여성 창업기업 선정지표의 동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측정지표 중에서 여성들의 심리적·인지적 특성과 개인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여성 창업자의 개인적 성향과 역량을 파악하는 도구의 개발은 단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별하는 것 이상으로, 특히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 창업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정책 개발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는 여성 창업자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기록될 것이다.

References

- [1] Majid Ali, Md. Lazim Bin Mohd Zin and Zuraida Binti Hassan,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and Corporate Culture on Women Career Advancement", *Pakistan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PJHSS)*, Vol. 7, No. 3, pp. 303-312, September 2019. DOI:<https://doi.org/10.52131/pjhss.2019.0703.0088>
- [2] Michael H. Morris, Nola N. Miyasaki, Craig, E. Watters and Susan Coombes, "The Dilemma of Growth: Understanding Venture Size Choices of Women Entrepreneu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JSBM)*, Vol. 44, No. 2, pp. 221-244, November 2019. DOI: <https://doi.org/10.1111/j.1540-627X.2006.00165.x>
- [3] Y.S. Kim, I.H. Lee, "Study on Characteristic Factors of Female Entrepreneurs for Vitalization of Female Entrepreneurship: Focusing on Case Studi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APJBVE)*, Vol. 17, No. 5, pp. 49-65, October 2022. DOI: <https://dx.doi.org/10.16972/apjbve.17.5.202210.49>
- [4] G.J. Nam, D.M. Lee and Lu Chen, "A Comparative Study on Survival Characteristics of

- Female Startups and Male Startups”, *The Women's Studies*, Vol. 100, No. 1, pp. 125-160, March 2019. DOI: <http://dx.doi.org/10.33949/tws.2019.100.1.005>
- [5] Alexandra Gallant, “*Capital Structure and Performance Among Women-Owned Firms*”,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 of Georgetown University, April 2015. Permanent Link: <http://hdl.handle.net/10822/760931>
- [6] J.S. Oh, Y.H. Kim. “The Case Study on the Management Style of Korean Married Women Entrepreneurs: Based on the Work-Life Balance Strategy”,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APJSB)*, Vol. 38, No. 4, pp. 27-52, December 2016. UCI: G704-SER000001590.2016.38.4.002
- [7] H.Y. Yang, S.H. Kim, S.H. Park, J.H. Ryu, W.G. Ham, J.W. Jeong and G.E. Jee, “*A study of policy for continuing start-up activation and completing local economy ecosystem*” Policy Study Report,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Korea, March 2017.
- [8] K.H. Jung, D.S. Choi,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Assessment Index for Selecting Start-ups on Balanced Scorecard”,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APJBVE)*, Vol. 13, No. 6, pp. 49-62, December 2018. DOI:<http://doi.org/10.16972/apjbve.13.6.201812.49>
- [9] Maria Minniti and Wim Naude, “What Do We Know about the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Female Entrepreneurship across Countries?”, *Th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EJDR)*, Vol. 22, No. 3, pp. 227-293, May 2010. DOI: <https://doi.org/10.1057/ejdr.2010.17>
- [10]H.M. Oh, C.Y. Lee and J.S. Kim, “The Study on the Women Entrepreneurs’ Psychological, Environmental, Personal Factors Affecting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APJBVE)*, Vol. 9, No. 2, pp. 45-60, April 2014. DOI: <http://doi.org/10.16972/apjbve.9.2.201404.45>
- [11]K.S. Min, S.C. Ahn, “A Study on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Female Corporate Founders on Managerial Achievem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APJBVE)*, Vol. 6, No. 4, pp. 1-20, December 2011. DOI: <http://doi.org/10.16972/apjbve.6.4.201112.1>
- [12]Hu Jiajia & Li Qiong,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Environment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of Chinese women: Focusing on Entrepreneurial Learning”, *Journal of Eurasian Studies(JES)*, Vol. 19, No. 2, pp. 89-103, June 2022. DOI: <http://doi.org/10.31203/aepa.2022.19.2.004>
- [13]C. H. LAWSHE,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Vol. 28, No. 4, pp. 563-575, December 1975. DOI:<https://doi.org/10.1111/j.1744-6570.1975.tb01393.x>
- [14]Y.J. Kang,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Delphi Techniqu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eport No. 수시 08-20, July 2008.
- [15]S.Y. No, “*델파이 기법: 전문적 통찰로 미래 예측하기(Delphi Technique: Predicting the Future with Professional Insight)*”, 알기 쉬운 국토연구방법론(Easy to Understand Land Research Methodology), pp. 121-133, December 2009.
- [16]I.B. Lee, M.J. Kang, J.W. Kim, “The Eff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he Founders’ on Startup Succ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Trust in the Business Model”,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8, No. 1, pp. 361-370, January 2022.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2.8.1.361>
- [17]T.Y. Kim, “*Present State and Response Policy on Government support dependent Zombie Company*”,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th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gust 2016.
- [18]M.J. Kim,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Innovation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 10, No. 3, pp. 93-103, September 2022. DOI: <https://doi.org/10.17703/IJACT>